

해방 이후(1945~50) 천안지역 정치동향의 추이와 성격

박 상 준*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정치동향에 대한 지역사료 연구로서, 충남 천안 내 변화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글이다. 해방 직후 미군의 진주와 인민위원회의 부침이라는 상황 속에서 천안지역 내 국가건설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천안에서는 일제시기 유력자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관료기구를 장악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우익세력으로 새롭게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탁치정국하에서 이들은 폭력공세를 통해 좌익세력을 억제하는 한편,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여 세력을 규합해 나갔다.

천안지역의 우익세력은 정치적 주도권을 점차 장악해 나가게 되었지만, 이후 야기된 분화현상이 1949~50년 간 진행된 두 번의 보궐선거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리고 곧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다시금 좌우익간 대결이 펼쳐지는 형태로 지역사회의 정세가 변화되어 갔다. 이와 같은 천안지역의 정세변화는 거시적으로 볼 때 당시 중앙정치의 규정력하에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다.

[주제어] 천안, 국가건설운동, 인민위원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광복청년회, 한국민주당, 총선거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좌익세력 와해 이후 우익세력의 |
| II. 해방 직후 천안지역의 동향과 세력 재편 양상 | 활동과 총선거 전개 과정 |
| III. 탁치정국하 좌우익간 대립과 정치지형의 변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식민잔재의 청산과 동시에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반도를 이념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놓았고, 좌우익 양측간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와 같은 좌우익의 갈등은 정치사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 psjei@naver.com

적 제 세력들이 자신들 나름의 국가수립 노선을 관철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노정되었다.

남한 내 국가건설운동과 좌우익간 대립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 과거부터 이어져 온 사회경제적 풍토 등 고유한 지역환경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방공간의 모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증하려는 사례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1945년 해방 이후 충남 천안지역 내 정치적 동향의 추이와 성격을 밝혀보고자 하는 글이다.

한편 지역의 정치적 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그 움직임을 주도했던 계층과 인물들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이전시기와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힌다는 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지역의 정치사회상을 다룬 대부분의 사례연구들 역시 이에 대한 단편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상황의 배경으로서 일제시기 지역사회의 동태, 또는 인물들의 궤적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그 연관성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¹⁾

마찬가지로 천안 내 지역정치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상호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와 관련하여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일제시기 천안지역 사회운동의 양상을 유력자층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한 바 있다.²⁾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삼아 해방이후의 양상을 연속선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불어 근현대 천안지역 정치사회적 흐름의 전체상을 그려나간다는 측면에서 그 공백을 채워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 역시 연구 진행의 동기이자 의도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천안 지역정치의 전개 양상을 다루어 보기에 앞서, 해방을 기점으로 어떠한 구도의 세력재편이 이루어졌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과거 일제시기 존재 형태와의 관련성을 찾고 분석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탁치정국하에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립했으며, 또 그 가운데 우익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경로를 서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좌익 활동이 와해된 시점 이후 우익세력의 활동과, 이어 전개된 국회의원선거의 양상까지 밝혀보고자 한다.

Ⅱ. 해방 직후 천안지역의 동향과 세력 재편 양상

해방 직후 한반도 전역에서는 각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생적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천

1) 이와 관련한 인근 충남지역 내 선행연구로는 장규식, 「해방 후 국가건설운동과 지역사회의 동향-충청남도 홍성군 사례-」, 『學林』 16,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94; 박찬승, 「20세기 전반 禮山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7: 1, 역사문화학회, 2004; 박찬승, 「근현대 당진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7: 2, 역사문화학회, 2004; 박찬승, 「해방 이후 홍성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동방학지』 13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許宗, 「미군정기 대전지역의 정치 동향과 국가건설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등이 있다.

2) 장규식·박상준, 「일제하 천안지역의 사회운동과 유력자층 동향」, 『中央史論』 48,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8 참조.

안에서도 인근 온양·홍성·보령·서천 등과 더불어 서울에서 파견된 학생들의 지도하에 자치를 위한 단체가 조직되어 치안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군청에 진입하여 군수에게 행정권의 인계를 요구하고 일본인 직원을 추방하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다.³⁾

얼마 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자 자치위원회·치안부 등으로 불렸던 전국의 산발적인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건준에 흡수되었다. 이어 건준은 9월 6일 “조선의 완전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그 주요 목표로 하여 국내외 각지 대표 천여 명을 모아 제1차 전국인민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여기에서 인민공화국 설립을 천명하고 이후 지방인민위원회의 조직을 축성할 목적으로 지방에 위원을 파견하였다.⁴⁾ 아울러 다음 달 7일 집행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이미 탄생되었고 인민의 지지도 받았으므로 이로써 건준은 그 창생기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였다.”라는 명분으로 건준의 해소를 결의하자,⁵⁾ 각 지방의 건준 지부는 인민위원회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천안의 경우에는 건준 지부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방 직후 조직된 자치단체가 건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민위원회로 탈바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월 21일 공포된 야전명령에 의해 기존에 충남과 호남지방을 점령하기로 예정되어있던 미군 제96사단이 텐진으로 파견되어 미군의 진주가 늦어짐에 따라, 충남지역은 일본의 군경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 9월 하순 대전에는 일본군 17방면군 사령부와 제12전차연대 등 15,652명이, 조치원에는 제320사단 사령부 2,600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천안 또한 경성관구 사령부와 제120사단 사령부 8,528명의 병력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군 점령 이후 일본으로 복귀했지만, 천안의 경우 일본인 경찰서장이 10월 중순까지도 계속 군내에 남아있었다.⁶⁾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천안지역 내 인민위원회는 여전히 통치기능을 수행하고 적산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천안에서는 10월 7일 미군 제7사단 17연대 1·3대대가 진주한 이후까지도 인민위원회가 12일간 군청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내 몇몇 지역에서 미군의 곡식 소비를 막기 위해 농민들로 하여금 추수를 하지 않도록 추동하였고,⁷⁾ 급기야는 인민위원회의 보안대가 경찰서를 점거하여 경찰서장을 감금하였다가 석방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⁸⁾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11월 20~22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제1회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천안지부 대표로 洪瓚燮·李壽永·金斗煥 3인을 파견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 집행부 선거와 기존 경과 및 지방 정세보고, 향후 방침 등이 논의되었다.⁹⁾

그러나 남한 진주 이후 본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기 시작한 미군은 철저한 우익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안 내 행정·경찰기관의 요직은 대부분 과거 친일 유력인사들과 관리 출

3) 森田芳夫·長田かな子, 『朝鮮終戰の記録: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書店, 1979, 382쪽.

4) 전국인민위원회,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의사록」, 1946(김남식(편), 『남로당연구』 Ⅲ, 돌베개, 1988 수록).

5) 『자유신문』, 1945년 10월 9일자.

6)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편), 『忠清南道誌』 10, 충청남도, 2008, 36쪽.

7) 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駐韓美軍史』, 돌베개 영인, 1988), Part.1 Chapter.6, 1945.

8) 森田芳夫·長田かな子, 앞의 책, 386쪽.

9) 전국인민위원회, 앞의 문서.

신 인물들로 충원되고 있었다. 여기에 따라 지역 내 유력자층은 새롭게 우익세력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는데, <표 1>은 해방 이후 천안지역 내 주요 행정·경찰기관의 현황이다.

〈표 1〉 해방 이후 천안 지역 내 주요 행정·경찰기관 현황(1946년 3월)

기관명	직원수(명)	직책 및 이름
천안군청	76	- 군수 : 兪光濬 - 내무과장 : 金演昌 - 산업과장 : 尹聖燮
천안읍사무소	-	- 읍장 : 宋昌漢
천안경찰서	24 (경부1, 경부보3, 부장21)	- 서장 : 鄭鎬元 - 총무과장 : 全榮洙(보안과장 겸직) - 수사과장 : 辛承烈

자료 : 政治工作隊中央本部, 忠南地方實情調查報告에 關한 件, 1946(『美軍CIC 情報報告書』,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영인, 1996).

위의 명단에서 천안군청 소속의 유광준·김연창은 과거 일제시기 지역 내 대표적 청년단체였던 천안청년회의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동시에,¹⁰⁾ 식민지 행정기구의 관료로 활동해온 인물들이었다. 유광준은 1927년부터 1940년대 이후까지 충남 각지에서 속(屬)으로 재직하였으며,¹¹⁾ 김연창은 1938년 천안부읍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¹²⁾ 마찬가지로 천안읍장 송창한 또한 일찍이 1910년대부터 1922년까지 천안보통학교 교사와 천안군속 등으로 재직해 오다가,¹³⁾ 1939년에는 천안미곡통제조합 총대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¹⁴⁾ 뿐만 아니라 1929년과 1943년에 천안면협·읍회의원으로 각각 선출되는 등,¹⁵⁾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 식민지 통치체제에 가담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송창한은 1920년대 천안의 대표적 종합회사였던 百濟商社의 감사역과 전무취체역을 역임하고,¹⁶⁾ 1931년에는 笠場面과 聖居面에 위치한 50만평 이상의 금광 광업권을 취득하는 등 자본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기도 하였다.¹⁷⁾ 한편 앞서 언급한 인물들 외에도 윤성섭은 충남도청 토목과에서, 정호원은 공주서와 대전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군청직원 전체 76명 중 대부분이 일제시기 관리 출신이었다.¹⁸⁾

이와는 달리 천안지역에서의 좌익세력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량이 미약하여 그것이 해방 이후에 전승되

10) 『조선일보』, 1925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 1926년 7월 7일자.

1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7, 187쪽; 朝鮮總督府, 위의 자료, 1937, 301쪽; 朝鮮總督府, 위의 자료, 1941, 242쪽.

12) 『동아일보』, 1938년 4월 14일자.

13)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12, 206~207쪽;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22, 269쪽.

14) 『동아일보』, 1939년 11월 5일자.

15) 『매일신보』, 1929년 5월 25일; 『매일신보』, 1943년 5월 23일자.

16)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3, 238쪽.

17) 『朝鮮總督府官報』, 6월 6일자.

18) 政治工作隊中央本部, 앞의 문서.

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사회주의운동의 주체적 기반이 취약했던 한편,¹⁹⁾ 천안읍을 일대로 하는 중심지역이 일제시기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던 배경에 기반한 것이었다. 천안읍은 전통적으로 삼남지방의 관문역할을 하는 개방된 지역성을 가진 가운데 일제시기에 이르러서는 경부선과 경남선(京南線)의 교차점이 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근대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상업가 중심의 신흥 유산자 계층이 지역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게 되었고, 도회지에 대한 식민지 권력의 막강한 통제력 등의 요소와 맞물려 천안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은 미약했다는 특징을 보였다.²⁰⁾

하지만 해방 직후 천안지역은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그 세력이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²¹⁾ 당시 조선공산당 중앙당의 영향을 받아 천안에서 좌익운동을 전개했던 주요 인물들 중에는 외지인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일본과 만주에서 귀국한 金斗煥·李宗杰 등이 있었다.²²⁾ 김두환은 앞서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천안지부 대표로 참여했던 것을 통해 인민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1930년대 장흥에서 청년동맹 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여겨진다.²³⁾ 그리고 이종걸은 1924년 참의부 2중대에 가입하여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역시 여겨진다.²⁴⁾

이렇듯 미군정하 관료기구가 과거 친일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는 한편, 사회주의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속에서 천안지역에는 다양한 정치사회단체가 결성되어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표 2>는 해방 이후 천안지역 내 활동하고 있던 주요 단체들의 현황이다.

<표 2> 해방 이후 천안지역 내 정치사회단체 현황(1946년 3월)

단체명	성향	가입자 수(명)	직책 및 이름
獨立促成 中央協議會	우익	80	- 회장: 李炳國 - 부회장: 林成圭 - 총무: 金敏相 - 재무: 孟敬永 - 선전: 姜得洙 - 간부: 朴性益, 尹吉淳
光復青年會		75	- 회장: 成樂洙 - 부회장: 李調
基督教青年會		100	- 회장: 金在福 - 간부: 姜得洙

19) 이와 관련해서는 같은 충남 내 홍성지역의 사례와 대조해 볼 수 있다. 홍성은 李珥-宋時烈-權尙夏-韓元震으로 이어지는 기호학과 유림의 적통을 계승하는 호서유림의 구심지였다. 홍성의 유림들은 호론을 대표하던 한원진의 학문적 영향 아래 한말 의병장 金福漢과 李倬 등을 필두로 화이론과 절의론을 전개하면서, 을사조약에 맞서 일어난 홍주 의병항쟁을 비롯하여 호서지방 유림들의 항일운동과 반일여론을 주도하였다. 이 같은 강한 유림의 전통은 일제시기 노동조합·신간회 홍성지회 등의 단체와, 더 나아가 해방 직후 농민운동을 비롯한 지역 내 진보적 사회운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장규식, 앞의 논문, 74~75쪽).

20) 일제시기 천안읍의 근대 도시화와 사회운동 전개 양상에 대한 분석은 장규식·박상준, 앞의 논문, II·III장 참조.

21) 政治工作隊中央本部, 앞의 문서.

22) 田炳圭, 「天安 2·9 義學事記」, 『郷土研究』 4, 天安郷土史研究所, 1993, 57쪽.

23) 『중외일보』, 1930년 3월 24일자.

24)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1934, 288쪽. 이종걸의 경우 참의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비교 검토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 명부에 기재된 이종걸과 그 개연성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병규의 글에 이종걸이 만주에서 귀국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인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체명	성향	가입자 수(명)	직책 및 이름
靑年同盟	좌익	80	- 회장 : 金泰益 - 부회장 : 徐光肅 - 총무 : 李佑載 - 선전 : 金泰安 - 문교 : 菊兢佑 - 산업 : 張漢復
人民委員會		40	- 위원장 : 洪讚燮 - 부위원장 : 金衡奎 - 내장부장 : 趙烈鎬 - 조직부장 : 鄭甲竜 - 선전부장 : 邊相喜
農民組合		130	- 조합장 : 方漢斗 - 부조합장 : 鄭甲竜, 趙重萬 - 총무장 : 邊相喜 - 선전장 : 金相悅 - 조직장 : 李鍾述
勞動組合		60	-
戰光同胞 相助會	중도	50	- 회장 : 金敏應 - 부회장 : 金昌式 - 총무부장 : 孟寅永
東方親睦會		80	- 회장 : 沈宣奎

자료 : 政治工作隊中央本部, 앞의 문서.

위 목록 가운데서도 천안지역의 정치 전개과정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단체는 우익성향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하 독촉중협)와 광복청년회이다. 독촉중협은 1945년 10월 민족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좌우를 망라하여 조직되었으나, 곧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계열이 이탈하고 임정세력이 불참하는 등으로 인해 총재인 이승만 주도의 우익적 성격으로 굳어진 단체였다. 독촉중협 천안지부는 1946년 1월 지역 내 여러 우익분파가 규합하여 결성되었는데, 결성 당시 천안군수 유광준이 방문하여 강연을 할 만큼 행정기구와도 유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²⁵⁾ 독촉중협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병국은 1919년 천안역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예심에 회부된 이력이 있었으며,²⁶⁾ 해방 이후에는 천안국민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었다.²⁷⁾ 또 간부였던 윤길순은 같은 시기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 천안군위원회회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이병국과 더불어 천안지역 우익세력의 핵심인물이었다.²⁸⁾ 그는 이병국과는 달리 과거 두 차례의 천안읍회의원과 친일단체인 排英同志會 평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 권력에 협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²⁹⁾

독촉중협 천안지부가 우익 정치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한 단체였다면, 광복청년회 천안지부는 주로 이들의 정치적 이해를 일선에서 수행했던 성격의 단체였다. 광복청년회 천안지부는 1946년 1월 11일 지역 내 우익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천안축구단원과 배구부 등의 젊은 구성원들을 조직해 결성되었다.³⁰⁾ 광복청년회 천안지부의 결성 당시 임원은 아래 <표 3>과 같다.

25) 『중앙신문』, 1946년 2월 1일자.

26) 『매일신보』, 1920년 11월 22일자.

27) 康晉和, 『大韓民國 人事錄』 人事錄細目, 内外弘報社, 1949, 113쪽.

28) 天安市誌編纂委員會(편), 『天安市誌』 上, 천안시, 1997, 370쪽.

29) 『동아일보』, 1939년 7월 22일자.

30) 田炳圭, 앞의 글, 60쪽.

〈표 3〉 광복청년회 천안지부의 초기 주요임원 명단

직책	이름
회장	崔弼榮
동원부장	柳畢南
주요 회원	金敏應, 金炯寅, 方成根, 裴順福, 成樂洙, 申基龍, 李康衍, 李達鍾, 李元鳳, 李昌重, 李漢鍾, 李煥國, 趙貴金

자료 : 田炳圭, 위의 글, 60쪽.

광복청년회 천안지부의 초기 명단을 살펴보면 앞서 〈표 2〉의 명단과 비교해 회장직을 맡은 인물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대 회장이었던 최필영은 1930년대 成農社 지배인 겸 영업주임과 開益鑛物工場 창립대표 등을 역임한 자산가 출신이었다.³¹⁾ 또한 그 외 회원 가운데 김민응은 역시 1930년대 東面普通學校(現 동면초등학교)와 葛田普通學校(現 병천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인물이었다.³²⁾

반면 인민위원회 천안지부의 회장이었던 홍찬섭은 천안출신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였다. 그는 3·1운동 당시 경기도 안성의 陽城面 만세시위를 주동했으며, 곧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여 국내선전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³³⁾ 그리고 이후 1928년에 이르러서는 신간회 천안지회 창립 당시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³⁴⁾ 동아일보 천안지국의 총무 겸 기자로 임용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³⁵⁾ 홍찬섭은 당시 좌익성향의 인민위원회를 이끌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후 특정할 만한 좌익활동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⁶⁾

이와 같이 천안지역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좌우의 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행정기구와 더불어 우익단체의 주요인물들 중에서는 독촉중협 회장 이병국을 제외한 대다수가 일제시기 식민지 체제에 포섭되어 활동해온 친일성향의 유력자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좌익세력의 경우 과거 지역 내 사회주의 또는 혁신청년계열이 이어지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유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요컨대 우익진영은 일제시기 지역 내 기반을 보유하고 있던 유력자들이 일정정도 연속선상에서 그 활동을 이어나간 반면, 좌익진영의 경우에는 그 세력이 새로이 재편되는 단절적 측면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다.

31) 康晉和, 앞의 책, 171쪽.

32)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32, 220쪽; 朝鮮總督府, 위의 자료, 1934, 260쪽.

33) 獨立有功者功勳錄編纂委員會(편), 『獨立有功者功勳錄』 2, 國家報勳處, 1986, 623쪽.

34)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자.

35) 『동아일보』, 1928년 7월 17일자.

36) 그가 1963년 독립유공자 서훈(독립장)이 수여된 사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Ⅲ. 탁치정국하 좌우익간 대립과 정치지형의 변화

해방 직후 천안지역의 각 단체들은 이렇다 할 충돌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거론된 한반도 신탁통치 관련 문제는 좌우익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탁통치에 관한 소식이 국내에 처음 보도되고 얼마 후 좌익 진영이 찬탁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찬탁과 반탁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우익진영의 여러 단체들은 거족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천안지역에서의 반탁시위는 1945년 12월 31일 처음 시작되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신탁통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연합국이 선언한 약속에 위반되며,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³⁷⁾ 또 1946년 1월 21일에는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 천안지부에서는 반탁군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회에는 청년동지회·동방친목회 등 수십여 중도 및 우익단체 뿐 아니라 천안군청·천안경찰서 등의 관공서까지 가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들은 오전 11시 榮町國民學校(現 천안초등학교) 교정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부터는 농악과 군악을 울리며 시가지를 행진하였다.³⁸⁾

천안의 우익세력들은 반탁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폭력을 동원하여 좌익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폭력공세의 선봉에 섰던 단체는 바로 광복청년회로, 먼저 1월 30일 1,500여 명의 군중들이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 개최를 환영하는 시위를 전개하자 곧바로 무장한 뒤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³⁹⁾ 더욱이 2월 9일에 이르러서는 그 공세가 노골화되어 지역 내 주요 좌익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2월 9일에 발생한 사건(이하 2·9사건)은 광복청년회가 천안소방대⁴⁰⁾와 연합하여 좌익계 인사들을 공격한 사건이었다. 사건은 전날인 8일 KTC(Korea Truck Company) 천안사업소 등지에서 좌익세력을 소탕하고 있던 천안소방대원들이 광복청년회에 합류하여 좌익계 인사인 崔宗淳의 집을 습격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⁴¹⁾ 최종순은 일제시기 지역 내 몇 안되는 대표적인 혁신청년계 인물로, 1926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이후⁴²⁾ 중외일보 천안지국장과 동아일보 천안지국 총무, 천안청년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⁴³⁾ 아울러 해방 이후에는 인민위원회 천안지부 노동책과 더불어, 당시에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자유신문의 천안지국장으로서 활동하는 등 우익세력과는 철저히 대척점에 서있던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좌익계 주요 인물인 최종순을 체포한 광복청년회원들은 여세를 몰아 이튿날 천안소방대원들과 함께 興亞産業 공장과 KTC 등에 침입하여, 동맹파업을 주도한 천안읍내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활동을 전

37) 『중앙신문』, 1946년 1월 4일자.

38) 『중앙신문』 1946년 1월 22일자; 『대동신문』, 1월 27일자.

3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美軍政情報報告書』, 日月書閣 영인, 1986), 1946년 2월 6일자.

40) 전병규의 글에서는 ‘의용소방대’라 표기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당시 언론에서 표현한 ‘천안소방대’로 표기하고자 한다.

41) 田炳圭, 앞의 글, 59~60쪽.

42) 公州地方法院檢事局, 『刑事々件簿』, 1926.

43) 『중외일보』, 1928년 1월 18일자; 『조선일보』, 1931년 6월 7일자; 『동아일보』, 1937년 6월 18일자.

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일에 이르러서는 인근 成歡面에서 이들의 지원을 받은 성환소방대(대장 趙奇實)와 광복청년회 성환지부(지부장 宋範用)가 梅珠里 등지의 좌익세력을 축출하였고, 이튿날에는 성환소방대가 주축이 되어 경기도 평택·안성·오산·서정리에서까지 그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같은 달 19일 천안경찰은 우익 측 주동자들 50명을 미군정 포고령 제1호 '난동 및 파괴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혐의로 소환하여 이 중 주요 인물이었던 11명을 구속하였고, 3월 3일에 4명을 추가 구속하여 총 15명을 대전지방 검찰청에 송치하였다.⁴⁴⁾ 당시 구속된 인물들의 소속과 이름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9사건 당시 우익세력 측 검거자 명단

단체명	이름
信託統治反對 國民總動員委員會	金敏應(광), 尹吉淳
光復青年會	方成根, 裴順福(소), 成榮洙, 申基龍, 柳畢南(소), 李康衍, 李達鍾(소), 李元鳳, 李昌重, 李漢鍾, 李煥國, 趙貴金(소)
天安消防隊	金光洙(소방대장)

비고 : (광)은 광복청년회, (소)는 소방대 검속.

자료 : 田炳圭, 위의 글, 63~64쪽.

표에 나와있는 소속별 인물들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사건의 주도층은 천안소방대보다는 광복청년회 천안지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통솔했던 인물은 우익 측 중진격 인물인 윤길순이었다.⁴⁵⁾ 아울러 소방대장이었던 김광수 역시 1922년 천안면에 共益精米所를 설립하여 경영해온 인물로,⁴⁶⁾ 지역 내 활동경력이 오래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윤길순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구속 송치된 위 15명 중 5명은 무죄로 석방되고 1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재판을 받은 인물들 역시 판사의 직권으로 한달여만에 보석 석방되었다. 이후 검찰측의 상고를 경성고등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재판은 종결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재판과정에는 지역 내 우익단체와 유력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천안출신의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의 지원이 있었다.⁴⁷⁾

2·9사건은 우익세력이 경찰·사법기관의 비호아래 좌익세력을 소탕하여 자신들의 활동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인근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일대 사건이었

44) 田炳圭, 앞의 글, 60~64쪽.

45) 『조선인민보』, 1946년 2월 10일자.

46) 康晉和, 앞의 책, 38쪽.

47) 田炳圭, 앞의 글, 64~66쪽. 1심 재판 당시 담당 판사와 검사는 각각 南廷瓖과 楊正秀로, 이들은 모두 일제하 판검사 출신이었다. 남정숙은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의 판사 등과 함께 반일운동 배척과 일선융화를 표방한 동민회 강경지부의 평의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양정수는 대구지방법원 검사대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에서 검사로 재직하는 중에 해방을 맞은 인물이었다. 한편 상고를 기각했던 경성고등법원의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대 및 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게 되는 독립운동가 출신의 金炳魯였다(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편), 『친일인명사전』 1, 민족문제연구소, 2010, 742쪽;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편), 위의 책, 481쪽).

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따라 당시 여러 신문들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과정에서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은 정치적 노선이 비교적 뚜렷한 신문들에게서 그 논조가 극명하게 갈리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시 대표적 우익성향의 대동신문에서는 본 사건의 원인을 좌익세력 속에 존재하는 ‘돌격대’의 빈번한 강도활동으로 보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천안경찰이 자신의 처를 권총으로 과실사살하고 도주한 崔允教(천안읍 영정 거주)를 비롯하여 강도협이자 수명을 체포 및 취조하여 이들이 돌격대원임을 밝혀냈다고 하였다. 또 여기에 더해 서울에서 ‘테러단’을 동원하여 관공서원과 일반 유지들을 살해할 계획이 드러났는데,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광복청년회와 천안소방대가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⁸⁾ 대동신문은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들이 재판을 앞둔 3월 10일에도 관련 기사를 내어 “극렬파괴분자 매국노들의 흉악한 음모를 사전에 탐지하고 의거에 나선 것”이라 드높이기도 하였다.⁴⁹⁾

반면 좌익계 신문들은 2·9사건을 주도한 우익세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좌익세력에 대해서는 무고한 피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논조를 드러낸 것은 조선인민보와 전국노동자신문으로, 이들은 대동신문이 좌익세력을 테러단이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2·9사건이 우익세력에 의해 자행된 일방적 테러였다고 바라보았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부터 천안지역의 우익세력이 관권까지 동원하여 좌익세력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우익 측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 한다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인민보는 그 사례로 1월 초 미군정과 천안경찰서가 농민조합장 방한두를 소환해 우익 측 인사 9명에 대한 암살계획을 날조하고, 2월 초 광복청년회원들이 우편국 앞 대로에서 좌익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붙잡아 암살계획에 대해 심문한 행위 등을 거론하였다. 더불어 친일 관공리 및 지주가 중심이 된 계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관제단체를 조직하거나 대동신문을 지역민들에게 구독시키는 등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2·9사건은 이와 같은 배경과 더불어, 2월 15일 중앙에서의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를 앞두고 비롯된 천안지역 좌익세력에 대한 견제였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논지였다.⁵⁰⁾

아울러 중앙신문은 기사 첫머리에서 2·9사건을 전달에 발생한 ‘학병동맹사건’과 함께 언급하며 “건국도상에 커다란 오점을 찍었다.”라고 평하였다. 또한 사건에 대해 경찰당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최중순·방한두·정갑용·徐光烈(돌격대장)·金東日(여자동지회)를 비롯하여 서울신문·자유신문·조선인민보의 독자 다수가 중상을 당했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⁵¹⁾ 그 외에도 영남일보에서는 가택을 습격당한 인물이 인민위원회 천안지부장 張倫植과 농조청년 돌격대의 간부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을 인용해 사건 다음날인 10일 소방서원들이 전날 습격한 가택과 사무소로 가는 신문기자 등을 무조건 구타했다고 보도하였다.⁵²⁾

이렇듯 각 신문에서는 2·9사건에 대해 보도된 내용이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논조까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여러 언론사들이 양분된 각 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여론에 영향을

48) 『대동신문』, 1946년 2월 24일자.

49) 『대동신문』, 1946년 3월 10일자.

50) 『조선인민보』, 1946년 2월 10일자; 『전국노동자신문』, 3월 22일자.

51) 『중앙신문』, 1946년 2월 15일자.

52) 『영남일보』, 1946년 2월 15일자.

미치고자 했던 배경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2·9사건에 관한 보도 양상은 언론분야가 첨예한 이념대립의 축소판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 할 수 있던 것이었다.⁵³⁾

2·9사건을 통해 탁치정국하에서 일단의 주도권을 확보한 천안지역 내 우익세력은 이후 이승만의 천안 방문을 계기로 그 조직력이 보다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승만은 이 해 2월 자신이 이끌던 독촉중협과 김구를 비롯한 임정계열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한 국민운동단체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국민회)의 총재로 취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독촉중협의 세력 통합 실패 등으로 인해 이승만은 독촉국민회 설립 직후 장악력을 강하게 발휘하지 못했으며, 대신 김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미소공위 국면과 더불어 위축된 자신의 정치활동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 16일 대대적인 지방순회를 나서게 된다.⁵⁴⁾ 그리고 그 지방순회의 첫 목적지가 바로 천안이었다.

4월 16일 오전 이승만이 서울을 출발하여 천안으로 향하자 수원·오산 등에서는 열렬한 환영이 이어졌다. 천안에서는 군수 유광준과 독촉중협 지부장 이병국이 평택까지 마중을 나와 그를 맞이하였다.⁵⁵⁾ 천안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수많은 우익단체 구성원들과 유력인사들 역시 이승만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이튿날 영정국민학교에서 개최된 강연회에는 30,000여 명의 인파가 운집하였다. 강연회장에 모인 각 단체들은 태극기와 ‘이승만 박사 만세’라고 쓴 커다란 기를 날리며 이승만을 지지하였다. 이승만의 강연은 약 50분간 진행이 되었고, 강연 후에는 천안읍장 송창한이 “이승만 박사의 건강 만세”를 삼창하였다.⁵⁶⁾ 강연회 이후 이승만은 이병국의 집에서 화교들과 회견을 가지고 난 뒤 대전으로 향했는데,⁵⁷⁾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독촉국민회 부총재인 김구가 시찰을 위해 천안을 방문하기도 하였다.⁵⁸⁾

연이은 두 우익진영 지도자들의 천안방문을 통해 그 사기가 고양된 속에서 천안지역의 우익세력은 계속적인 반공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승만과 김구의 방문이 있는 다음 달인 5월 6일 미소공위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무기휴회에 들어가자 같은 달 15일 천안읍내에서는 10,000여 명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매국노 전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영정국민학교에 모여 “이제는 우리 손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큰 장해물인 매국정당을 전멸하자.”고 결의한 뒤 가두행진을 벌이며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겼다.⁵⁹⁾

53) 따라서 이 시기 뚜렷한 이념을 표방했던 신문사들은 종종 반대세력의 주 표적 대상이 되곤 하였다. 1946년 1월 초순에만 좌우익 4개 신문(대동·서울·중앙·조선인민보)에 대한 습격이 연달아 발생하였으며, 1946년 3월 3일 독촉전국청년총연맹에서는 당시 자신들의 이념에 반하는 보도를 하던 4개 신문(서울·자유·조선인민보·중앙)에 대해 성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여기에서 위 신문들을 “매국적 공산당의 주구배화(走狗輩化)한 옐로우 페이퍼가 저널리즘이라는 미명에 숨어 불합리한 대등합작을 권고함으로써 일부 공산계통에 대하여 과대망상증을 조장시켰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5월 14일에는 우익세력이 3개 신문사(자유·조선인민보·중앙)를 습격하는 등 그 공세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러한 가운데 조선인민보와 중앙신문은 9월 6일 현대일보와 함께 미군정에 의해 정간처분을 받기에 이른다(『동아일보』, 1946년 1월 10일자; 大韓獨立促成全國青年總聯盟, 「反逆新聞業者를 聲討함」 1946년 3월 3일자(國史編纂委員會(편), 『資料 大韓民國史』 2, 1969 수록); 『동아일보』, 1946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1946년 9월 7일자).

54) 김수자,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京仁文化社, 2005, 69~71쪽.

55) 『자유신문』, 1946년 4월 18일자.

56) 『북미시보』, 1946년 6월 15일자.

57) 『조선일보』, 1946년 4월 18일자; 『자유신문』, 1946년 4월 20일자.

58) 『자유신문』, 1946년 4월 24일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익세력들은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과 독촉국민회 천안지부 결성을 통해 진용의 준비를 마치게 된다. 먼저 한민당 천안지부는 5월 19일 천안극장에서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하여 결성식을 개최하였는데, 초대 지부장에는 이병국이 선출되었다.⁶⁰⁾ 본래 자산가 및 보수 지식인 계층을 기반으로 결성된 한민당은 창당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대원칙으로 삼았으나, 천안지부가 결성된 시기를 직후로 하여 이승만의 단정론이 제기되자 그 노선을 선회해 나가게 된다.

독촉국민회 천안지부의 경우에는 정확한 결성 날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1946년 8월 15일에 해방 1주년 행사를 주최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민당과 비슷한 시기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⁶¹⁾ 한편 한민당과 독촉국민회 천안지부는 별도의 정치적 주체였지만, 양자 모두가 이병국을 대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본질은 반공과 반탁을 요체로 하는 동일한 단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²⁾

위와 같이 천안지역의 우익세력은 탁치정국하에서 반탁운동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2·9사건으로 대표되는 좌익세력과의 대립을 거치며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는 각종 관료기구와 밀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과 이승만·김구의 방문 등을 거치는 속에서 천안의 우익세력은 반공과 단정수립을 기치로 하는 보다 방대한 조직적 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한민당과 독촉국민회의 지부 결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IV. 좌익세력 와해 이후 우익세력의 활동과 총선거 전개 과정

1946년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에 의해 남로당이 지하조직화되고, 이어 발생한 10월항쟁은 좌익세력의 활동 추진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지역 내 10월항쟁은 서북부의 4개군(서산·당진·예산·홍성)과 천안에서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는 약간의 동요만이 있었다. 10월 25일까지 경무부에 보고된 충남 내 사건관련 검거자 수는 총 98명이었는데, 이 중 천안이 43명을 차지할 만큼 그 움직임이 격렬하였다.⁶³⁾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47년에 접어들어 미소공위를 재개하기 위한 양국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남한 내에서는 반탁에 대한 열기가 최고조로 치달게 되었다. 1월 16일 한민당과 독촉국민회를 비롯한 35개의 우익정당과 단체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⁶⁴⁾ 여기에 호응하여 지방 각지에서는 열렬한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천안에서는 7월 1일 독촉국민회·광복청년회·애국부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9) 『가정신문』, 1946년 5월 19일자.

60) 『동아일보』, 1946년 5월 31일자.

61) 『동아일보』, 1946년 8월 17일자.

62) 독촉국민회 천안지부 결성당시 회장이 이병국이었던 기록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병국이 줄곧 독촉총협의 회장이었고, 또 이후의 1948년 총선거 당시에도 독촉국민회 후보로 출마했다는 부분은 그가 독촉국민회 결성당시에도 회장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63) 『경향신문』, 1946년 10월 26일자; 정해규, 『10월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1988, 169~170쪽).

64) 『동아일보』, 1947년 1월 17일자.

반탁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이 시위에는 30,00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시위대는 천안읍 사무소 앞 광장에 집결한 뒤, 신탁통치 결사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천안역 방향으로 시가행진을 벌였다. 또 그 과정에서 독촉국민회 측 주동자인 이병국(회장)·윤길순(부회장)·洪鍾鳴 등이 검거되기도 하였다.⁶⁵⁾

그런가 하면 당시 천안 내 독촉국민회와 광복청년회는 조직을 지역의 말단 행정구역까지 구축하며 촘촘한 세력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환면의 경우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는데, 여기에서는 각 리(里) 단위에서 분회(分會)를 두고 지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8월 26일 미국의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중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자, 성환면 내 분회장들은 서신을 모아 보냄으로써 신탁통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하였다.⁶⁶⁾ 이들이 보낸 편지는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사실상 연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重大한 使命을 띠고 來朝하신 貴下를 眞心으로 歡迎합니다. 우리는 託治政府같은 內政干渉을 받는 政府는 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信託을 絶對反對하고 完全自主獨立을 戰取키 爲하여 決死鬪爭하고 있습니다. 將軍이시여 우리에게 眞意를 똑바로 諒察하실 援助하야 주심을 바라나이다.⁶⁷⁾

방한 당시 웨드마이어 사절단은 한국인들과의 회담에 체류기간을 대부분 소비하였고, 현지 조사활동에서 한국인들의 의견 청취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면담대상 또한 정치·종교·언론인과 청년·노동단체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그와 함께 광범한 개인·단체로부터 건의서·진정서·청원서 등의 서신을 접수하였다. 여기에 따라 한국인들은 웨드마이어 사절단과의 회담을 자기 정파의 정치적 계획과 건의내용을 선전하고, 조직적 세를 과시하는 기회로 여겼다.⁶⁸⁾ 위 독촉국민회와 광복청년회 분회장들의 편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 아울러 그것은 2·9사건과 더불어 성환면 내 우익 인사들의 적극성과 결속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한편 1947년 말에 이르면서 천안의 우익청년단체들은 정치권력과 보다 밀접한 제휴를 맺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11월 3일 천안에서는 광복청년회·독촉청년회·서북청년회가 통합하여 대동청년단 천안지부를 발족시켰다.⁶⁹⁾ 대동청년단은 이승만을 총재, 지청천을 단장으로 한 전국의 32개 청년단체가 규합된 결집체로, 충남지부에서는 홍성과 유성에 훈련소 설립을 계획하는 등 종래의 청년단체들보다 군대화된 모습이 나타

65) 『독립신문』, 1947년 7월 3일자; 『부인신보』, 1947년 7월 10일자.

66)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한국 방문은 공개적으로는 경제원조법안의 의회 통과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동기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수집과 점령정책에 대한 현실적 평가, 그리고 미군정 관리들과 한국인들의 의견수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鄭容郁, 「미군정기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방한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東洋學』 30,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0, 5쪽).

67) 鄭宗和, 『웨將軍에게』, 1947년 8월 30일자 외.

68) 鄭容郁, 앞의 논문, 13쪽.

69) HQ USAFIK, 앞의 문서, 1947년 11월 5일자.

났다.⁷⁰⁾ 대동청년단 천안지부의 결성식은 지청천이 입석한 가운데 천안제이국민학교(현 남산초등학교)에서 거행되었으며, 단장에는 朴虎凡, 부단장에는 尹龍均·李奎鳳이 선임되었다.⁷¹⁾ 또 이어 같은 달 10일에는 조선민족청년단 천안지부가 천안극장에서 단원 150명의 규모로 결성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대동청년단과 마찬가지로 단장인 이범석이 참여하고 있었다.⁷²⁾ 이 시기 전국단위에서 조선민족청년단은 기존에 대동청년단과 유지되었던 긴장관계가 완화되어 단독선거를 위한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⁷³⁾

이와 같이 민족분단의 고착이 심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남한의 정세는 단독정부수립을 향한 분위기로 점차 기울어갔다. 그러자 공개적 대중활동이 무력화된 좌익세력은 단독정부수립에 대한 저지 수단으로 게릴라식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천안지역에서는 1948년 2월 13일에 15명의 좌익인사들이 관공서 공격과 공장설비 손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물건 중에는 각종 선전문을 비롯하여 다이나마이트 등 각종 폭약 관련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⁷⁴⁾ 그리고 이러한 좌익세력의 활동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거세져, 5월 7일에서 11일 사이 충남지역에서는 후보자 부상 1건, 우익인사 부상 1건, 좌익인사 검거 4건, 기관차 손상 2건, 전화선 절단 1건, 가옥 방화 및 습격 3건, 관공서 방화 2건 등이 발생하였다.⁷⁵⁾

좌익세력의 단독정부수립 저지투쟁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치러진 단독선거에서는 일부 중도파 무소속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 우익계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되었다.⁷⁶⁾ 충남지역에서는 전체 당선자 19명 중 독촉국민회 소속이 10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천안군 역시 독촉국민회 후보 이병국이 총 투표수 57,800표 중 19,590표를 얻어 제헌의원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8일 이병국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6월 10일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金鏞化가 당선되었다.

김용화는 당선 직후부터 한국 내 미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소장파 의원들에 맞서 군원요청성명 발표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⁷⁷⁾ 그런데 같은 달 민주국민당⁷⁸⁾의 공작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이 내세웠던 김용화의 공산주의자 규정사유는 “인기가 좋다.”, “조

70) HQ USAFIK, 위의 문서, 1947년 12월 26일자.

71) 『자유신문』, 1947년 11월 24일자.

72) 『자유신문』, 1947년 11월 24일자; HQ USAFIK, 앞의 문서, 1947년 11월 29일자.

73) 林鍾明, 「조선민족청년단(1946.10~1949.1)과 미군정의 ‘장래 한국의 지도세력’ 양성정책」, 『韓國史研究』 95, 한국사연구회, 1996, 199쪽.

74) HQ USAFIK, 앞의 문서, 1948년 2월 16일자.

75) HQ USAFIK, 위의 문서, 1948년 5월 11일자.

76) 당시 민족자주연맹과 한국독립당 등의 중도파 정당은 단독선거 불참을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어기는 당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강경방침으로 대응하였으나, 조봉암을 비롯한 일부 인물들은 단독선거를 현실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그 외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보에는 한민당 소속으로 출마하면 떨어질 것을 염려한 한민당원을 비롯하여 우익 청년단체나 정당과 연관을 가진 인물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체 무소속 당선자 85명의 성향을 살펴보면 10여 명이 순수한 무소속이었으며, 중도파 노선이 30여 명, 나머지는 한민당 노선의 인물들이었다(『領導權掌握에 包攝工作活潑』, 『동아일보』, 1948년 5월 20일;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成大史林』 10, 성균관대학교 사학회, 1994, 48쪽;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개정증보판), 웅진지식하우스, 2013, 107쪽).

77) 『동아일보』, 1949년 6월 21일자.

78) 민주국민당은 제헌과정에서 이승만과 대립하기 시작한 한민당이 대한국민당과 세력을 규합하여 1949년 2월 10일 창당한 정당으로, 같은 해 11월 12일 대한국민당이 재창당될 때까지 제1야당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직이 공산당식으로 잘 되어있다.”, “말을 잘한다.” 등이었다.⁷⁹⁾ 결국 위 사건으로 인해 김용화가 의원직을 상실하자 천안에서는 7월 23일 두 번째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김용화에 적대적이었던 민국당 소속의 李相敦이 당선된다.

이상돈이 남은 임기를 채우고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시 김용화가 친이승만계 정당인 대한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즉 천안지역에서는 공교롭게도 각종 변수로 인해 2대의 국회 임기 동안 총 네 차례의 선거를 치른 셈이었다. 또 이 가운데 김용화의 재당선은 결과적으로 독축(대한국민당)계와 한민당(민주국민당)계간의 갈등사이에서 천안지역 내 여론의 무게가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일제시기 천안지역 내 활동 이력이 미약한 인물이었다는 점 역시 새로운 변수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좌익세력 붕괴 이후 지역정치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천안의 우익진영은 5·10총선거 이후 그 세력이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은 중앙의 정치형세에 따른 선거국면상의 현상이었을 뿐, 지역 내 국가건설운동의 전개 속에서 이렇다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천안의 여러 우익단체들이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이후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2대 국회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한국전쟁은 다시금 천안지역의 세력구도를 좌우익간 대결의 형태로 바꾸어 놓게 된다.

천안지역은 전쟁 개시 13일 만인 7월 8일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인민군은 경찰서·법원·군청 등 주요 건물을 확보한 뒤, 정치보위부·내무서·검찰부·조선노동당사 등 자신들이 지역을 통치할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2·9사건 당시 우익세력에 의해 축출당했던 인물들을 포함한 좌익인사들이 협력하게 되었고, 그들은 공무원과 2·9사건의 주요 참여자 등 주요 우익 측 인사들을 체포·감금하는 보복을 자행하였다. 특히 체포된 이들 가운데 2·9사건 관련 인물들은 가장 중범자로 분류되었는데, 여기에서 윤길순을 비롯한 7명의 2·9사건 관련자들이 공무원 11명과 함께 9월 18일 대전형무소로 이송 중 피살당한다.⁸⁰⁾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천안지역에서는 다시 우익세력에 의한 재보복의 양상이 전개된다. 천안의 우익세력은 인천상륙작전 이전부터 광복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그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8월 10일 태극동맹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는 2·9사건 관련자와 더불어 관련자의 가족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태극단원들은 초기에는 벽보부착을 통한 선전활동을 해 오다가, 연합군이 천안을 탈환한 9월 25일부터는 감금된 우익인사를 구출하거나 좌익세력을 체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⁸¹⁾

종합적으로 볼 때, 좌익세력 붕괴이후 천안지역 우익진영의 전개 양상은 1949년 이후 세 차례의 선거가

79) 李起庸, 『寫眞으로 본 國會二十年』, 韓國政經社, 1967, 450쪽. 한편 이러한 민국당과의 대립과 더불어 미군철수에 대한 그의 입장 등을 미루어 볼 때 김용화와 축정계간의 연계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80) 田炳圭, 앞의 글, 67~69쪽. 당시 피살당한 2·9사건 관련자는 宋夏榮·尹吉淳·李甲福·李已慶·鄭榮保·崔九山·洪炳烈 등이었다.

81) 田炳圭, 위의 글, 70~73·78쪽.

진행되는 속에서 보수정당이 세분되어 갈등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남북한 점령이 번갈아 반복되는 가운데 발생한 새로운 대립구면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천안 지역의 양상들은 곧 남한의 전국적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던 것이다.

V. 맺음말

해방 직후 천안은 미군의 진주가 지연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 행정공백이 장기간 발생한 지역이었다. 이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자치단체가 지역 내 통치를 담당하고자 하였으며, 머지않아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군 진주이후 행정·경찰기관에 과거 친일 유력자층의 인물들이 등용됨에 따라, 이들은 반공·반탁·단정수립을 매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롭게 우익세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반면 활동기반이 미약했던 좌익세력은 외지인의 유입을 추진력으로 삼아 우익세력과 대립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천안지역의 우익세력은 탁치정국 초기 반탁운동 전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을 기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좌익세력과 갈등이 심화되어 그것이 폭력을 동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9사건은 천안지역 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좌우익간의 유혈사태로, 여기에서 우익세력은 공권력과의 결탁을 이루는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

2·9사건을 통해 국가건설운동 과업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천안 내 우익세력은 이후 한민당과 독촉국민회 천안지부 발족을 통해 조직상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아울러 우익세력의 전위대로서 활동하던 여러 청년단체들이 대동청년단·조선민족청년단 천안지부 등으로 통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여 단독정부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해나갔다.

1948년 곳곳에서 벌어진 좌익세력의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남한 단독선거가 치러졌다. 천안지역에서도 전국의 지배적 여론에 발맞추어 독촉국민회 소속의 후보가 제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임기도중 사망하였고, 이후 독촉계와 한민당계 사이의 대립이 노정되어 두 차례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즉 단독정부노선을 관철시키는데 함께했던 보수 우익세력 내부에 분화가 나타나고, 그 분화는 1949년 이후의 선거과정들에서 전면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되면서 지역 내 대립 양상은 다시 좌우익간의 구도로 회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해방 이후 천안지역 내 일련의 추이는 당시 남한 내 정치세력 지형의 일반적 현상을 선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가정신문』, 『경향신문』, 『대동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인신보』, 『북미시보』, 『영남일보』, 『자유신문』, 『전국노동자신문』, 『조선인민보』, 『조선일보』, 『중앙신문』, 『중외일보』
- 『朝鮮總督府官報』
- 公州地方法院檢事局, 『刑事々件簿』, 1926.
- 大韓獨立促成全國靑年總聯盟, 「反逆新聞業者를 聲討함」 1946년 3월 3일자(國史編纂委員會(편), 『資料 大韓民國史』 2, 1969 수록).
- 전국인민위원회,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의사록」, 1946(김남식(편), 『남로당연구』 Ⅲ, 돌베개, 1988 수록).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12.
- _____,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2.
- _____,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7.
- _____,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32.
- _____,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34.
- _____,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37.
- _____,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41.
-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1934.
- 鄭宗和, 『워將軍에게』, 1947년 8월 30일자 외.
- 政治工作隊中央本部, 忠南地方實情調查報告에 關한 件, 1946(『美軍CIC 情報報告書』,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영인, 1996).
-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3.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美軍政情報報告書』, 日月書閣 영인, 1986).
- 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駐韓美軍史』, 돌베개 영인, 1988).
- 田炳圭, 「天安 2·9 義舉事記」, 『鄉土研究』 4, 天安鄉土史研究所, 1993.
- 天安市誌編纂委員會(편), 『天安市誌』 上, 천안시, 1997.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편), 『忠淸南道誌』 10, 충청남도, 2008.
- 康晉和, 『大韓民國 人事錄』 人事錄細目, 内外弘報社, 1949.
- 김수자,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만 연구』, 京仁文化社, 2005.
- 獨立有功者功勳錄編纂委員會(편), 『獨立有功者功勳錄』 2, 國家報勳處, 1986.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개정증보판), 웅진지식하우스, 2013.

李起庸, 『寫眞으로 본 國會二十年』, 韓國政經社, 1967.

정해구, 『10월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1988.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편), 『친일인명사전』 1, 민족문제연구소, 2010.

_____,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10.

森田芳夫・長田かな子, 『朝鮮終戰の記録: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書店, 1979.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成大史林』 10, 성균관대학교 사학회, 1994.

박찬승, 「20세기 전반 禮山の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7: 1, 역사문화학회, 2004.

_____, 「근현대 당진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7: 2, 역사문화학회, 2004.

_____, 「해방 이후 홍성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동방학지』 13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林鍾明, 「조선민족청년단(1946.10~1949.1)과 미군정의 '장래 한국의 지도세력' 양성정책」, 『韓國史研究』 95, 한국사연구회, 1996.

장규식, 「해방 후 국가건설운동과 지역사회의 동향 - 충청남도 홍성군 사례 -」, 『學林』 16,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94.

장규식·박상준, 「일제하 천안지역의 사회운동과 유력자층 동향」, 『中央史論』 48,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8.

鄭容郁, 「미군정기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방한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東洋學』 3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許宗, 「미군정기 대전지역의 정치 동향과 국가건설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 이 논문은 2021년 2월 17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Trends in Cheonan After Liberation(1945~50)

Park, Sangjun*

This paper is a regional case study on post-liberation political trends and aims to examine the aspects of Cheonan, Chungcheongnam-do, in chronological order.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the National Foundation Movement actively began to go on in Cheona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U.S. military's station and the People's Committee's ups and downs. In Cheonan, a new reorganization was made by a right-wing forces, which were influential pers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aking control of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carrying out anti-trusteeship movements. And und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trusteehip, while suppressing left-wing forces through violent attacks, they rallied their forces with Rhee at the peak.

The right-wing in Cheonan area gradually took over the political initiative, but the eruption has been revealed in three general elections at 1949~50. And soon after, the situation of the community has changed in the form of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again through the Korean War. This change of situation in Cheonan was following the trend under the regulatory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t that time.

[Keywords] Cheonan, the National Foundation Movement, People's Committee, National Society for the Rapid Realiza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NSRRKI), Gwangbok Youth Association, Korean Democratic Party, general election

* Researcher,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 A candidate for the PhD, Department of History, Chung-Ang University

